

육군 3사관학교 생도선발에 관한 고찰

정 재 극*

요 약

육군 3사관학교는 국가가 인가한 편입학 사관학교이다. 장교양성교육기관으로 2년간의 교육을 마치면 대학졸업과 동시 육군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대한민국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하여 양성되고 있는데 미래 육군의 중추가 될 육군 3사관학교 사관생도 모집에 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A Study on the selection of cadets 3 Army Military Academies

Jung Jae Keak*

ABSTRACT

The Army 3 Military Academy is a government-approved transfer school. After two years of education as an officer training institution, I will be graduated from college and concurrently be called as an army. In order to become a Korean offic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recruitment of cadets who are trained through variou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who will become the backbone of the future army.

Key words : Army, military academy, officer, cadet

접수일(2019년 7월 29일), 게재확정일(2019년 9월 21일)

* 수성대학교/군사학과 교수, 학과장

1. 서 론

육군의 생도과정 사관학교에는 육군사관학교, (이하 육사) 육군 3사관학교(이하 3사)가 설치되어 있다. 이중 3사는 경북영천에 위치하고 있고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2년제 편입사관학교이다. 4년제 육사보다 아래라는 인식은 초창기 고졸자를 대상으로 단기 교육 후 임관시킨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후 생도 2년 교육 후 전문대 학력으로 임관시키다가 잠시 모집을 중단하였다. 이후 민간 전문대졸 이상 학력소지자를 선발하여 단기 과정 교육 후 임관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모집형태는 육사보다는 나이와 학력 면에서 떨어진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육사가 고졸자를 대상으로 하고 3사는 2년제 대학졸업자 및 4년제 대학 2년이상 수료자가 지원하는 만큼 육사 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는 객관적인 평가는 없다. 따라서 3사 생도선발에 수도권 명문대 재학중인 학생들도 지원하는 만큼 국가에서 육사와 동일한 처우와 진급을 보장해야만 더욱 우수한 자원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1]

4차 산업혁명으로 모든 일자리가 줄어들어 가는 현실은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전문대학중 군 간부 양성학과가 인기가 많은데 이는 장교와 부사관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인 20여년에 걸쳐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전문대학에서는 부사관 선발을 목표로 육군과 협약을 맺어 맞춤형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군 협약대학에서는 최초 홍보시 부사관 및 3사 생도 진학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모집하고 있다. 부사관 지원시 군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3사는 대학재학중이 아니면 지원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학 입학 후 생도선발에 대한 진로진학을 해주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3사로 진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간과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유일의 편입사관학교인 3사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대학 1학년때 지원할 수 있는 예비생도, 2학때 지원할 수 있는 정시생도 등 2번의 기회를 갖게 된다.

예비생도의 선발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합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요구하는 가점요소들을 준비하고 필기평가, 체력, 면접을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합격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3사의 또 다른 특징은 대학 2년 졸업 및 수료학력이 있으면 현역병 및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생활을 경험하고 장교의 길을 가아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면 중, 대대장 추천서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사에서는 부사관 신분으로 생도생활을 하다가 임관시 장교군번으로 병적이 변경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육군 장교 양성교육기관인 육군 3사관학교 생도들의 선발과정에 대해 고찰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육군 3사관학교

육군 3사관학교는 대학 3학년 편입 사관학교이다. 장차 군을 이끌어 나갈 지성과 지도력을 갖춘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으로 민간 대학에서 2년 생활 후 육군 3사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하여 사관생도로써 2년을 교육받고 졸업과 동시에 육군소위로 임관하는 과정이다. 육군 3사관학교에서는 일반학, 훈육, 군사학 교육을 통한 지, 덕, 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립대학교와 동일 수준의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여 졸업시 일반학, 군사학의 2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또한 고급수준의 영어회화와 군사영어 교육으로 연합작전능력을 배양하고 정보화 교육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향상 시키고 있다. 교육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사관생도 품위유지비로 2019년 기준 3학년 632,120원, 4학년 726,620원을 지원하고 있다. [2]

2.1. 생도생활의 보람

육군 3사관학교 생도들은 멋과 낭만을 향유하고자, 지, 덕, 체의 균형적인 발전과 리더십 배양을 통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성공의 필수요소인 불굴의 의지와 정신력 및 강한 체력 연마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함양한다. 부하를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과 논리적 의사표현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영어 회화와 제2외국어, 전산능력 배양, 구기운동과 태권도 2단 이상의 무도실력을 갖추고 인생의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도생활이다.[3]

2.2 생도생활

생도들은 단체생활을 할수 있는 생활관과 첨단 교육시설에서 학위교육을 받게 된다. 현대식 생활관에서는 각종 편의시설과 생도자치체에 의한 자율적인 내무생활, 정기적인 외출, 외박, 휴가제도와 매주 수요일 문화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 시설에는 스마트형 강의실, 첨단 어학, 시청각실, 전산실, 무선인터넷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디지털화 된 도서관, 현대식, 이·공학 실험실, 수영장, 헬스장, 농구장, 무도장을 갖춘 종합체육관과 동양 최대의 잔디 운동장을 갖추고 있다. 또한 1식 4찬과 후식 등이 지원되는 웰빙식단을 포함하여 생도 1명이 임관시 까지 약 1억여원의 지원되고 있다.[4]

2.3 임관후 비전

졸업과 동시 육군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임관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약 80%가 장기복무자로 선발되며 이는 전원이 장기복무자로 선발되는 육군사관학교 다음으로 장기복무자 선발 비율이 높다. 임관후 3년까지는 중위로 복무하게 되며 일반직 공무원 6,7급에 해당하는 예우와 약 2천8백만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미혼인 경우 독신자 숙소가 제공되고 기혼자일 경우 아파트와 관사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장기복무자의 70%이상이 영관장교로 진출하며 19년6개월 근무시 연금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령으로 진급하게 되면 30년 이상 근무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3사관학교 출신 170여명의 장군이 배출되어 있다. 국내와 국외 민간대

학원에 진학하여 국비로 석,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취득 후에는 교수, 방위사업청, 정책부서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미국 등 우방국의 군사학교에 유학하여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우방국 국방무관으로 파견되어 군 외교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전역 후에는 군사학과 교수, 비상기획관, 예비군지휘관, 군무원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5]

2.4 3사관학교 인재상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에서는 학업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사관생도 선발시 학업성적과 더불어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여야 한다. 국가안보와 통일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의식이 강해야 한다. 군과 사회의 대표 리더를 희망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춘 사람이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3. 생도모집 고찰

3.1 지원자격

2년제 졸업 및 예정자, 4년제 대학 2학년 수료자, 학점은행제는 전문학사 취득자, 학사학위 취득 신청자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해외대학 2,3,4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유학생, 현역 복무중인병사들과 부사관들도 학위만 갖추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소속 대대장급 지휘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타군의 경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을 제외하고 각 군 사관학교 및 퇴교자와 군인사법 제10조에 의거 장교임관자격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3년제 대학의 경우 전문대로 분류되기 때문에 2년을 마친다고 지원할 수 없다. 3학년을 졸업하거나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다. 수능 시험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하며 수능 응시자가 지원시에는 수능성적표, 국어, 영어, 수학, 내신성적과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언어영역은

필수이며 외국어 영역과 수리영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수능 미응시자는 1차선발시 고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내신성적과 공인 영어시험인 토익, 토픽스, 토픽스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3.2 가산점 부여

가산점은 태권도, 유도, 검도 3단 이상 유단자,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수자,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 PCT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1차 선발시 최고 9점까지 부여한다. 다만 가산점 요수 중 같은 항목의 경우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요소 1개만 적용하며, 각기 다른 항목일 경우에는 합산하여 최고 9점까지 부여받게 된다. 태권도나 유도 중에서는 높은 단에 대한 가산점을 받으나 태권도와 전산자격증일 경우 각기 다른 항목이므로 가산점을 합산하여 부여 받게 된다.

3.3 선발시험

생도선발은 정시생도와 예비생도로 구분하여 선발하며 1차 서류전형, 2차 선발고사, 3차 신체검사, 인성 / 성격검사, 체력검정, 면접시험을 거쳐 신원 및 학력 조회 후 최종 선발한다

(정시생도 최종선발방법)

구분	계	1차			2차		3차		
		대학성적	고교내신	수학능력	영어	지적능력	면접	체력검정	신체인성
배점(점)	400	40	60	60	100	100	60	40	합불
비율(%)	100	10	15	15	25	25	15	10	·

대학수학능력 성적제출자는 대학성적과 대학수

학능력성적을 적용하고 미제출자는 대학성적과 고교내신 성적을 적용한다.

(예비생도 최종선발방법)

구분	계	1차			2차		3차		
		고교내신	수능성적	공인영어	영어	지적능력	면접	체력검정	신체인성
배점(점)	400	50	50	50	100	100	60	40	합불
비율(%)	100	12.5	12.5	12.5	25	25	15	10	·

대학수학능력 성적제출자는 고교내신과 대학수학능력성적을 적용하고 미제출자는 고교내신과 공인영어성적을 적용한다.

정시 / 예비생도의 고교내신 성적 적용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이며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40% 적용하며 대학수학능력 적용과목에서 언어영역은 필수이고 외국어 또는 수리영역 중 택 1하면 된다.

(정시·예비 2차 시험과목과 배점)

구분	계	영어	지적능력				
			소계	언어능력	자료해석	공간능력	지각속도
점수	200	100	100	38	38	12	12

영어시험은 모의토익 Listening 100 문제, Reading 100 문제를 평가한다.

4. 우수생도 선발 및 합격 방안

4.1 우수 생도선발 방안

우리나라의 육군 장교과정은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ROTC, 학사장교, 전문사관, 간부사관 등 6개로 구분할 수 있다. 장교과정은 모집시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이 계급별 진출 등을 고려하여 모집하고 있다. 단기복무 자원은 2-3년 간 군복무를 하게 되며, 소대장 또는 중위급 참모장교로 활용하기 위해 모집하는 과정으로, 학군, 학사, 전문사관, 간부사관이 있으며 복무의 성격상 의무복무자로 볼 수 있다. 중·장기복무 활용 자원은 6-10년 이상 복무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3사와 육사가 해당된다. 대부분의 인원이 직업군인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3사관학교는 육군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특수목적을 가진 대학교로 2년간의 21개의 전공인 일반학과 군사교육을 받게 되며 졸업 시 전공학위와 군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임관후 의무복무기간은 6년이다.[6]

이와같은 혜택을 받는 3사관학교 생도를 선발함에 있어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생도선발 홍보를 고교보다는 대학위주로 다니는 현상을 고교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고교 진학지도는 각군 사관학교, 군사학과만 하고 있으며 3사관학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3사관학교 출신 교사들도 극소수인원에 그쳐 3사관학교에 대한 진학지도가 전무한 상태이다. 고교때 군장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3사관학교에 대한 존재를 인식시키고 진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사전 인지하도록 해야만 대학 진학후 예비생도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5월에 원서 접수를 하는 시기를 고려한다면 대학 진학후 준비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육군사관생도와 동일하게 생도로 입교하게 되면 임관시 장기복무자로 선발하는 것이다. 현재 3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장기복무율은 70-80% 머물고 있다. 3사관학교 생도들은 자비로 대학 2년 수료하고 선발된 만큼 다양한 지식을 겸비하고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한 만큼 육군사관학교 생도와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과거부터 육사보다는 3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장기복무를

차별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동일하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 평소 학술교류와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도 3사 생도도 참여시켜 소속감을 고취시켜야 한다. 생도시절부터 상호 군의 특성을 이해하고 교류를 활성화 하면서 성장한다면 장차 군의 화합과 통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2 생도합격 방안

3사관학교 생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준비해야 한다. 첫째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어학점수와 무도단증을 준비해야 한다. 어학과 무도는 단기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교 생활 동안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어공부를 충분히 해둔다면 1차 서류전형후 2차 필기평가에서 영어점수의 비중이 큰 만큼 영어공부에 좀 더 치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2차 시험에 영어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하며 최대한 지적능력평가 시험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육군과 협약된 군사학과로 진학하여 3사관학교 출신 교수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4년제 대학에 진학하여 3사관학교로 편입을 준비하다보면 대학은 지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3사관학교 편입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교수들도 3사관학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진학을 지도하기가 어렵다. 현재 육군과 협약된 전문대학 군사학과는 부사관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지만 3사관학교 편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도 운영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셋째 체력과 면접을 꾸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 체력과 면접을 합격하기 위해 3사관학교 교수들을 초빙하여 요구하는 인재상과 체력부분을 지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합격을 위한 노하우가 축적된 학군 협약 군사학과에 진학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학군협약대학 중 매년 2자리수 합격 생도를 배출하는 학교가 다수인 것은 군출신 교수들의 열정과 정보력,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5. 결 론

육군 3사관학교 생도들에게 2년간 약 1억여 원의 교육비전액과 품위유지비를 지원하고 있다. 졸업과 동시에 병역과 취업, 학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최고의 교수진과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일반대학에서 학업과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3사관학교에서 전공과 군사학을 이수하면 2개 학위를 취득한다. 대학생활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병사들을 이해하는데 육사출신 초급장교보다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병사들을 지휘함에서 있어 이해심 많은 장교라는 인식이 점차 증대될 것이다. ROTC 장교들이 대학생들과 학군단 생활을 병행하는 것처럼 3사관 생도들도 대학생생활을 경험해봄으로써 80% 정도 대학 진학하는 병사들을 지휘통솔 하는데 유리하다고 보여진다. 현재 장기복무 선발과 장군 배출도 육사 다음으로 3사가 출신 장교가 진출하는 것도 생도모집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사관학교의 통합이 실효성이 있다는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3사관학교는 모집 단위가 고졸자가 아닌 대학을 다니면서 군 장교의 뜻을 둔 학생에게 문호를 개방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였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중도에 포기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와 군을 이해하는 장교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3사관학교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육군3사관학교에서는 우수학생들이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고교방문을 확대하고 육군사관학교와 차별없이 생도로 선발되면 임관시 장기복무자로 분류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직업적 소명을 갖고 적극적인 군생활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각군 사관학교 생도와 3사관학교 생도를 포함하여 육·해·공군 통합 교육체계를 발전시켜야 장차 고급장교가 되어서도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뿌리깊게 남아있는 장교들간의 출신별 차별은 군 생활한 장교들은 모두 경험하고 느꼈을 것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과거에 집착하여 생도시절부터 차별을 둔다면 시대착오적 발생이다. 3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생도

시절부터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고 임관 후에도 공정한 경쟁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군을 경험한 군 출신학자들의 소명일 것이다. 앞으로 통합사관학교로 제도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사관학교 제도하에서 과거와 같은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유일의 편입사관학교인 육군3사관학교가 더욱 발전적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손용규, 사관생도 모집을 위한 효율적 홍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 2-12. 2001
- [2] 육군3사관학교, 생도모집 소책자, pp5-10, 2018
- [3] 전종민, 3군사관학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영어시험 타당도 분석, 한국군사학논집, pp70-71, 2016
- [4] 서정옥, 육군3사관학교 총교육비 산출에 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pp26-32, 2003
- [5] 육군3사관학교, 2019년도 모집요강, 2018
- [6] 배준호, 우수생도 선발을 위한 입시전형 방법 연구 : 3사관학교 생도 선발과정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pp3-5, 2004

〔저자소개〕



정 재 극 (Jung Jae Keak)
1990년 학사
1996년 석사
2013년 박사
2011년 ~ 현재
수성대학교 군사학과 교수/학과장

email : kuk2934@naver.com